

# 지대추구 행위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혁구\*\*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      | V. 결론    |
| III. 자료와 연구방법 |          |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1988-2012년 사이 25년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대추구 행위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대추구 행위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부패인식지수(CPI), 부패 규모(CURSCALE), 부패관리의 수(CURNUM) 등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대추구 행위가 부패를 양산하고 제도개혁과 혁신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역기능이 존재하나 체제 이행기를 맞고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지대추구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제어: 중국, 지대추구 행위, 부패, 경제성장, 부패인식지수(CPI)

\* 본 논문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좋은 제언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I. 서론

중국은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선 지난 2년간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 강도 높은 사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sup>1)</sup>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향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최근 들어 경기둔화세 지속, 지역 간 격차 확대, 산업구조 불균형 등 체제 전환기적 특징을 반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그동안 개혁개방의 눈부신 경제적 성과 이면에 존재했던 국가 혹은 기업 수준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거래비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비공식적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포장된 관료 중심의 산업화와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제 전환기에 직면한 중국의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지대추구 행위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sup>2)</sup> 지대추구 행위는 정부의 사회운영체제의 미흡으로 인해 뇌물제공 여건 조성이 가능해지고 불합리한 자원배분을 초래하는 데 있다. 지대추구로 인한 폐해는 사회 안정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sup>3)</sup>

본 논문은 체제전환기에 처한 중국의 각종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관

1)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이후 리춘청(李春城) 쓰촨(四川) 성 당 부서기가 낙마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성부급(省部級·장관급) 이상 고위직 55명이 부패 혐의로 몰리났으며 18만 명의 당원이 비리 혐의로 처분을 받았다(『동아일보』 2014/10/29).

2) 공산당 18기 4중전회의 핵심 의제는 법치주의 확립(依法治國)으로 부패척결, 사법 독립 등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의제이기도 하지만 제도 환경의 개선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심화된 경제개혁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3) 이에 과거처럼 부정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법에서 더 나아가 비용이라는 경제적 접근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육이혁구(2013)의 논의를 참고할 것.

료 중심의 산업화와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의 산물이라고 평가되는 중국의 지대추구 행위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I장 서론, II장에서는 지대추구와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와 분석모형 등 연구방법론에 대해 기술하며,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마지막 V장 결론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해서 논하였다.

## II. 선행연구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분석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Tullock(1967)은 생산성 없는 소득 창출을 지대추구라고 하였고, Anderson(1988) 등은 정부의 통제력을 이용한 이익추구를 지대추구로 정의하여 보완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Tollison(1982)은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거래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희소한 자원을 배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Fischer(2006)는 지대추구 행위가 일반적으로 희소자원의 지출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창출된 지대를 포획하거나 사회의 의도된 소득 재분배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지대추구 행위는 공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공 자원의 오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정치인, 관료, 엘리트 등 정부, 사회 또는 비즈니스 권력층에 의해 시도된다.

지대추구의 생성 원인과 관련하여 North(1990)는 제도적 장치(틀)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자주 지대추구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면 지대추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법률의 비효율성, 재산권의 부재 등 제도적 취약성은 자원의 오용, 규정 위반, 무역의 제한 등 지대추구 행위를 부추기게 된다. 일단 지대추구가 발생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또한 North(1990)는 지대추구 행위가 거의 자기 제한적(self-limiting)이라고 강

조한다. 제도적 장치는 지대추구 행위가 개인으로 하여금 지대추구 행위에 가담하도록 독려하기도 하며 또 다른 지대추구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은 법률의 취약성, 공공부문의 관리가 허술하여 대부분의 지대추구 행위는 국회의원, 군대, 경찰, 판사, 공공부문의 관리자 및 구청원 등 지배층에 의해서 행해진다.

한편, 지대추구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분석방법과 사용한 데이터가 달라 분석결과 또한 상이하다. 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신고전주의 경제성장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지대추구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경제학, 내생성장모형의 분석에서는 지대추구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대추구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대추구 행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단순히 부의 재분배가 가능해지며 지대추구 행위자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자 하지 않는다(Brumm 1999).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지대추구 행위자들이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에서 핵심 지위를 장악하여 경제개혁과 제도적 변화에 대항하기도 한다(Fischer 2006). 더 나아가 지대추구 행위는 생산적인 활용으로부터 자원을 전환시켜 경제성장을 지연시키거나(Cole & Chawdhry 2002), 혁신을 저해하기도 한다(Murphy 등 1993).

지대추구 행위가 부패행위를 낳기도 하지만 비교적 집권주의적 국가나 경직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체제 이행기를 맞고 있는 국가의 경우 어느 정도의 부패는 경제성장에 유리하다. 김시윤(1999)은 국가개입과 경제성장에 관한 지대추구이론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한국과 같은 특정국가에서 국가개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전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국가창출의 지대는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사회적 손실은 매우 낮았다. 한국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은 지대추구비용을 낮추었고 국가창출의 지대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에 투자하고 경제적 성과를 높이도록 함으로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국가개입은 오히려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대추구 이론이 중국에 처음 소개된 이후 연구의 대부분은 부패 연구에 집중되었다(胡和立 1989; 陸丁 1993; 張軍 1995; 賀衛 1999a; 郭晋剛·馬曉維 1999; 盧現祥 2000; 楊帆 2001; 過勇·胡鞍綱 2003).

중국의 지대추구 행위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정(+)<sup>4</sup>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대비한 연구(賀衛·王滙塵 1999), 기업의 지대추구 행위 연구(仲偉周 1999), 정책성 지대의 생성 원인과 정부의 지대추구 활동의 역할에 대해 연구(賀衛 1999a; 2000b) 등이 있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王滙寧(1990)은 일정 정도의 지대추구 행위는 경제 활동의 윤희제 역할을 하며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난제를 해결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張維迎(1997)의 연구에서도 지대추구 행위는 관료의 적극성을 이끌어내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張曙光(1994)은 개혁은 일종의 지대추구 행위 과정으로 인식하였으며 많은 개혁에는 보편적으로 지대추구 행위와 부패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楊飛虎(2011)는 개혁개방과 전환기 초기 공공투자 영역에서의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지만 경제가 일정 수준에 이른 후 부패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켰으며 현재 공공투자 영역의 부패 정도는 이미 임계치에 달했다고 평가했으며 결국 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하지만, 중국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1990년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져 현재 중국의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중국 지대추구 행위와 경제성장 관련 연구로는 러시아, 북한, 중국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에 대한 분석(한병진 2006), 지방정부의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분석(김수한 2008; 강승호 2011, 전상경 2014), 중국의 부정부패의 문제점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분석(김욱·이혁구 2013) 등이 있으나 대부분 중국의 토지를 둘러싼 지방정부의 지대추구에 대한 연구로 정성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지대추구 행위는 국가의 발전 상황, 정

4) 중국의 공공투자의 부패 정도와 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 관계의 쿠즈네츠 곡선 효과가 존재한다. 개혁개방 초기와 전환기 초기에 부패는 공공투자 규모 확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면서 한계효용체감에 따라 부패의 긍정적 효과가 갈수록 작아졌다.

치체계 등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분석방법과 사용한 데이터가 달라 분석결과 또한 상이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기초로 중국의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 및 한국의 기존 정성적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본다.

### Ⅲ. 자료와 연구방법

지대추구 행위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대추구 행위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Brumm(1999)와 Cole and Chawdhry(2002)의 모형을 활용하여 중국의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식(1)과 같다.

$$Y_t = b_1 + b_2HC_t + b_3INV_t + b_4RSA_t + u \quad (1)$$

식 (1)에서 종속변수인 Y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GDP를 나타내며 HC는 인적자본, INV는 고정자산투자, RSA는 지대추구행위를 나타내며 t는 시간으로 분석기간은 1988-2012년이다.

내생성장모형에 따르면 인적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장이 크게 나타난다(Mankiw, Romer & Weil 1992). 마찬가지로 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견인한다(Rommer 1990). 따라서 인적 자본과 투자의 회귀계수는 정(+)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대추구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변수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 규모(Grossman 1988; Durden 1990), 변호사 수(Laband & Sophcleus 1988; Murphy et al. 1991), 로비(Rama 1993; Mork 1993; Brumm 1999; Cole & Chawdhry 2002), 공공부문 취업(Gelb et al. 1991; Brumm 1999; Cole & Chawdhry 2002; Park et al. 2005), 관료구조(Spinesi 2009), 부패(Svensson 2000; Mohtdi & Roe 2003) 등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대추구 행위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이용되었다. 하지만 지대추구 행위와 같은 변수의 자료를 습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변수를 지대추구 행위의 대응변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Brumm 1999), 특히 중국 연구에 있어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대추구의 대응변수로 부패인식지수(CPI),<sup>5)</sup> 부패규모(CURSCALE),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처벌된 관료의 수(CURNUM)를 활용하였다.<sup>6)</sup> 따라서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text{부패인식지수(CPI)} = \lambda_1 \text{RSA} + \delta_1 \quad (2)$$

$$\text{GDP대비 부패규모(CURSCALE)} = \lambda_2 \text{RSA} + \delta_2 \quad (3)$$

$$\text{부정부패 관리수(CURNUM)} = \lambda_3 \text{RSA} + \delta_3 \quad (4)$$

서로 다른 변수들의 단위로 인한 이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text{GDP}) = b_1 + b_2 \log(\text{HC}) + b_3 \log(\text{INV}) + b_4 \log(\text{RSA}) + u \quad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내총생산(GDP), 고정자산투자(INV) 데이터는 중국통계연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적 자본(HC)은 <2013年中國人力資本報告>를 참고하였다.

한편, 지대추구행위(RSA)의 대응변수인 부패인식지수(CPI)는 국제투명성기

5) 부패인식지수, 또는 부패지수로 불리는 CPI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1회 발표하는 국가별 공직자의 부정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10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CPI는 공직사회, 정치권 등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조사 대상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수로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CPI가 10-8.0인 국가는 청렴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8.0-5.0 사이인 국가는 상대적으로 청렴한 국가(혹 부정부패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가)로 분류되며, 5.0-2.5 사이인 국가는 상대적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2.5-0 사이인 국가는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옥·이혁구(2013)의 논의를 참고할 것.

6) 중국의 부정부패 규모 및 추세와 관련한 데이터는 부록을 참고할 것.

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패규모(CURSCALE), 부정부패 관리수(CURNUM) 등은 김옥·이혁구(2013)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기초통계량

	CPI	CURNUM (명)	CURSCALE (억 위안)	GDP (억 위안)	HC (억 위안)	INV (억 위안)
Mean	3.396	2570.48	51.388	151344.5	27366.21	83785.91
Median	3.5	2699	45.6	88228.1	19632.4	32917.7
Max.	4.6	5098	220	519322	80723	374675.7
Min.	2.2	194	3.65	14922.3	5346.1	4410.4
Std. Dev.	0.568243	1362.817	43.3117	148731.9	21870.98	104219.7
Obs.	25	25	25	25	25	25

## IV. 분석결과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회귀분석과 통계적 추정은 가성회귀(spruious regression)가 문제될 수 있기에 변수에 단위근이 있는지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설정하는 ADF검정을 통해 단위근 검정을 하였고 수준변수에 대한 검정결과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에 1차 차분변수에 대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으며,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 데이터가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표 2> 단위근 검정결과

		t-Statistic	Prob.*
log(GDP)	수준변수	-0.59678	0.8555
	차분변수	-3.49374	0.0161
log(HC)	수준변수	0.132002	0.9626
	차분변수	-4.11956	0.0037
log(INV)	수준변수	-0.03155	0.9471
	차분변수	-3.3386	0.0253
log(CPI)	수준변수	-2.34204	0.1669
	차분변수	-3.29695	0.0251
log(CURSCALE)	수준변수	-3.846896	0.0078
	차분변수	-5.755866	0.0001
log(CURNUM)	수준변수	-0.680061	0.8328
	차분변수	-7.602603	0.0000

지대추구 행위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력자본과 투자의 회귀계수는 앞서 예상한대로 모두 정(+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형의 수정 R2 값이 크게 나타나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모형 (1)에서 지대추구 행위의 대응변수인 부패인식지수(CPI)는 당해와 전기(t-1)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국가 청렴도가 높을수록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형 (2)의 부패규모(CURSCALE)와 모형 (3)의 부패 관리수(CURNUM)의 회귀계수는 모두 정(+)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t;표 3&gt;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log(HC)	0.383467** (2.708447)	0.242236* (1.851719)	0.129991 (1.398341)	0.342983** (2.326554)
log(INV)	0.536076*** (6.331109)	0.606875*** (7.367317)	0.644285*** (11.44755)	0.536999*** (6.405163)
log(CPI)	-0.212300* (-1.931010)			0.161173 (1.475601)
log(CPI(-1))	-0.447636*** (-4.926772)			-0.381266*** (-3.798950)
log(CURSCALE)		0.051377** (2.568212)		-0.027327 (-1.301974)
log(CURNUM)			0.131588*** (5.556679)	0.102877** (2.230751)
상수항	2.273323*** (5.214851)	2.449334*** (5.173956)	2.341515*** (6.768868)	1.949380*** (4.214952)
Adj. R <sup>2</sup>	0.998425	0.996452	0.998113	0.998639
F-statistic	3647.151***	2247.622***	4231.424***	2813.387***
D.W.	1.980074	1.372216	1.385863	1.995550

\* 괄호 안 수치는 t통계량임.

\*\*\*p&lt;0.01, \*\*p&lt;0.05, \*p&lt;0.1.

지대추구 행위 대응변수를 모두 대입시킨 모형 (4)의 경우 전기(t-1기) 부패인식지수는 모형 (1)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가 부(-)로 나타났으며 부패할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관리 수(CURNUM)의 회귀계수 또한 모형 (3)과 마찬가지로 정(+)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당해 부패인식지수의 회귀계수가 정(+)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며, 부패규모의 회귀계수는 부(-)로 나타났으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는 1988-2012년 사이 25년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대추구 행위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대추구 행위의 대응변수로 사용한 부패인식지수(CPI), 부패 규모(CURSCALE), 부패관리의 수(CURNUM) 등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대추구 행위가 부패를 양산하고 제도개혁과 혁신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역기능이 존재하나 체제 이행기를 맞고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지대추구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대추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부의 인위적 자원배분에 따른 지대추구 행위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에 주의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국가의 발전 상황, 정치체제 등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식 경제성장 방식의 산물이라고 평가되는 지대추구 행위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였으나 데이터 확보에 용이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지대추구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대응변수를 발굴하고 국가 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비교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부록> 중국의 행정적 부정부패의 규모와 추세**

연도	GDP (억 위안)	GDP 증가율 (%)	부정부패 금액 (억 위안)	GDP대비 부정부패금액 비중 (%)	현금이상 부정부패 관리수
1984	7,206.7	13.0	0.90	0.124	-
1985	8,989.1	16.2	2.68	0.298	-
1986	10,201.4	9.1	8.00	0.784	-
1987	11,954.5	9.4	4.72	0.395	-
1988	14,922.3	11.4	4.23	0.283	194
1단계 평균	10,654.8	11.8	4.11	0.377	194
1989	16,917.8	3.9	4.82	0.285	875
1990	18,598.4	5.0	8.10	0.436	1,188
1991	21,662.5	7.0	5.00	0.231	924
1992	26,651.9	12.8	3.65	0.137	587
2단계 평균	20,957.7	7.2	5.39	0.272	894
1993	34,560.5	13.4	22.00	0.637	1,037
1994	46,670.0	11.8	34.00	0.729	1,915
1995	57,494.9	10.2	49.00	0.852	2,262
1996	66,850.5	9.4	67.80	1.014	2,699
1997	73,142.7	8.8	56.30	0.770	2,577
1998	76,967.2	7.8	43.80	0.569	1,820
1999	80,579.4	7.1	40.90	0.507	2,200
2000	88,228.1	8.0	47.00	0.533	2,871
2001	94,346.4	7.3	41.00	0.435	2,670
2002	103,553.6	8.0	220.00	2.125	3,269
3단계 평균	72,239.3	9.2	62.18	0.817	2,332
2003	116,694.0	9.1	43.00	0.368	2,728
2004	159,878.0	9.9	45.6	0.285	2,900
2005	182,321.0	9.9	74.0	0.406	2,779
2006	209,407.0	10.7	58.3	0.278	2,736
2007	246,619.0	11.4	58.5	0.237	2,706
4단계 평균	182,983.8	10.2	55.9	0.305	2,770
2008	316,030.3	9.6	60.9	0.193	4,960
2009	340,320.0	9.2	44.4	0.130	3,743
2010	399,759.5	10.3	89.7	0.224	5,098
2011	472,115.0	9.2	84.4	0.179	4,843
2012	519,322.0	7.8	78.3	0.151	4,681
5단계평균	409,509.4	9.2	71.5	0.175	4,665

\* 김육·이혁구(2013) 재인용.

| 참고문헌 |

- 강승호 (2011). “중국 지방정부의 렌트추구와 성장패턴.”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제3호, pp. 135-163.
- 김수환 (2008). “중국 도시 토지제도 개혁과 지방정부 행위분석: 토지사용권 양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제2호, pp. 31-53.
- 김시윤 (1999). “국가개입과 경제성장-지대추구론 비판을 중심으로.” 『韓國行政論集』. 제11권. 제4호, pp. 755-773.
- 김욱·이혁구 (2013).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점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4호, pp. 1-26.
- 전상경 (2014). “중국지방정부 토지재정 행위의 정치경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9권. 제1호, pp. 109-140.
- 한병진 (2006).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과 정권의 경로: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국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4호, pp. 1-29.
- Brumm, H. J. (1999). “Rent Seeking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he States.” *Cato Journal*. Vol. 19. No. 1. Spring/Summer, pp. 7-16.
- Cole, I. M. & M. A. Chawdhry (2002). “Rent Seeking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A Panel of U.S. States.” *Cato Journal*. Vol. 22. No. 2, pp. 211-228.
- Durden, G. (1990). The Effect of Rent Seeking on Family Income Levels: Some Suggestive Empirical Evidence. *Public Choice*. Vol. 67, pp. 285-291.
- Fischer, P. V. (2006). *Rent-Seeking, Institutions and Reforms In Africa: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for Tanzania*. USA.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Press.
- Gelb, A. J., B. Knight, & R. H. Sabot (1991). “Public Sector Employment, Rent Seeking and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Journal*. Vol. 101. No. 408, pp. 1186-1199.
- Grossman, P. (1988).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A Non-Linear Relationship. *Public Choice*. Vol. 56, pp. 193-200.
- Laband, D. N. & J. P. Sophocleus (1988). The Social Cost of Rent-Seeking: First Estimates. *Public Choice*. Vol. 58, pp. 269-275.
- Mohtadi, H. & T. Roe (2003). “Democracy, Rent Seeking, Public Spending and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7, pp. 445-466.
- Mork, K. (1993). “Living with Lobbying: A Growth Policy Coopted by

- Lobbyists Can be Better than No Growth Policy at All.”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5, pp. 597-605.
- Murphy, K. M., A. Shleifer & R. W. Vishny (1991). “The Allocation of Talent: Implications for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2, pp. 503-530.
- Murphy, K. M., A. Shleifer & R. W. Vishny (1993). “Why Is Rent Seeking So Costly to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3. No. 2, pp. 409-414.
- Park, H., A. Philippopoulos and V. Vassilatos (2005). “Choosing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Under Rent Seeking from State Coffe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1, pp. 830-850.
- Rama, M. (1993). “Rent Seeking and Economic Growth: A Theoretical Model and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 Vol. 42, pp. 35-50.
- Spinesi, L. (2009). “Rent-seeking Bureaucracies, Inequalit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90. No. 2, pp. 244 - 257.
- Svensson, L. (2000). “Foreign Aid and Rent Seeking.”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1, pp. 437 - 461.
- 江建中 (1995). “尋租對經濟增長的影響.” 『財經研究』, 第6期, pp. 52-55.
- 過勇·胡鞍鋼 (2003). “行政壟斷, 尋租与腐敗:轉型經濟的腐敗机理分析.” 『經濟社會體制比較』, 第2期, pp. 9-61.
- 郭晋剛·馬曉維 (1999). “我國股票市場尋租行為初探.” 『改革』, 地2期, pp. 3-71.
- 楊飛虎 (2011). “公共投資中的腐敗問題与經濟增長.” 『公共管理』, 第8期, pp. 162-169.
- 王滬宁 (1990). 『反腐敗: 中國的實驗』, 北京: 三环出版社.
- 張曙光 (1994). 『腐敗与賄賂的經濟分析』, 中國經濟學.
- 張維迎 (1997). 『中國經濟大論戰』,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 賀衛 (1999a). 『尋租經濟學』,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 \_\_\_\_ (2002b). “政府創租行為研.” 『上海交通大學學報(社科版)』, 第1期, pp. 64-69.
- 胡海軍 (2006). “尋租的經濟增長效應.” 『宏觀經濟』, 第12期, pp.77-78.
- 黃少安·趙建 (2009). “轉軌失衡与經濟的短期和長期增長: 一个尋租模型.” 『經濟研究』, 第12期, pp. 80-92.

| 논문투고일 : 2014년 11월 14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12월 09일 |

| 게재 확정일 : 2014년 12월 09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4 (2014)

## **The Effect of Rent-seeking Behavior on Economic Growth in China**

**Hyukku Lee**

(Dept. of Chinese Studies, PaiChai Univ.)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ect of rent-seeking behavior on China's economic growth with 25 years data, between 1988-2012. The present study finds that as a proxy variable of rent-seeking behavior, such a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corruption scale (CURSCALE), and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CURNUM) were found to be affected in positive economic growth in China with higher significance. This means that although the rent-seeking behavior has a dysfunction, relatively large negative effect on the reform and innovation in the empirical literature, but the conclusion reached here is that China has a particularities of transitional economy would further lowers the cost of rent-seeking, furthermore, rent-seeking behavior is estimated to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in China.

- Key words: China, Rent-seeking behavior, Corruption, Economic growth,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